

2024년
고1
6월 모평

2024년 시행 고1 6월 모평 국어 문학 | 왕시전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왕언의 딸 왕시는 흥관 땅의 김유령을 만나 혼인을 했지만 나라의 높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다.(관탈민녀 모티프)(관탈민녀 모티프가 드러나는 <춘향전> 등의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제 나이 스무 살 되었을 때 아내를 얻었는데,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 늘 서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일도 잊은 채,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어 그것만을 희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꿈(김유령이 화산도사를 찾아가게 만드는 계기)(<구운몽> 등의 작품을 <보기>로 제시한 후, 꿈의 역할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 선 할아버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 화산도사를 찾아가 보지 않는가?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으니 네가 가보면 소원(아내인 왕시와 다시 만나는 것, 왕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갈 때 돈 일만 관을 가져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자 도사(김유령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초월적인 존재)가 말했다.

“네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네 뜻을 자세히 말해라.”

[김유령이 말했다.

“도로 내어다 살기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와 하루만이라도 만나보아 서로 말이나 나누었으면 합니다.”(김유령의 현실적인 소망)

도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네 뜻을 바로 말하지 않는구나.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욱 슬플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사실대로 다 말해라.”

그러자 김유령이 다시 대답하였다.

“함께 살기야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불가능할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함께 살게만 해 주신다면(김유령의 궁극적인 소망) 제가 두엄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 화산도사의 꾸짖음에 자신의 진실된 소망을 고백하는 김유령)(해당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도 ‘김유령은 도사에게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하였다.’라는 적절한 지 않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중략)

“접때 이 땅에 오라고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대답하였다.

“네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월궁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대가 선간(仙間)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하고(주인공이 전생에 신선계의 인물이었음. / 적강 모티프)(적강 모티프가 활용된 작품을 <보기>로 제시한 후, 인물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 년만 좋은 일을 하면 선간에서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그대의 말을 들으려 했더니, [그대 무엇 때문에 짐승을 살게 하였단 말인가? 비록 하늘이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란 모질어 죄없는 사람이며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느니라.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적을 어찌서 살려주었느냐?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 하였지 그런 것들을 살려내라 하더냐? 이 두 가지 일을 또 저질

렸으니 삼 년간 조심하고 사 년 만에 오너라. 그때 보자.]([]: 좋은 일을 하라는 화산도사의 말을 듣고 뱀과 도적을 구했으나, 다른 이들을 해치는 존재를 구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새로운 과업을 받음.)**(화산도사가 김유령을 질책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고는 간데없이 사라졌다.(전기적 요소)**(해당 작품에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김유령이 애달고 민망해 집에 와서 문을 닫고는 들어앉아 조심하여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행실을 삼가고 있다가 사 년 만에 화산으로 들어갔다.(화산도사가 제시한 과업을 지킨 후, 다시 찾아온 김유령) 그제서야 도사는 김유령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네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돌이 굳지만 모래 될 때가 있고 쇠가 굳다 하나 녹을 때가 있으되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이로다.(돌, 쇠와 비교하여 김유령의 굳은 의지를 칭찬함.)**(해당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유령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게 이루어질 게 있으리라. 네 돈을 내라.”

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쪽으로 그중의 일백을 던지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다시 서쪽으로 일백을 던지자 이윽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또 일백을 북쪽으로 던지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나머지를 공중에다 던지자 이윽고 쇠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을 지닌 사람과 귀밑머리가 단정한 사람 등이 오는 것이었다.(김유령이 바친 돈으로 신이한 존재들을 부르는 화산도사 / 전기적 요소) 도사가 그중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궁궐에 가 왕시도 죽이고 오라.”

그러자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즉시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왕시도 죽이고 와서는 보고하였다.

“왕시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른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유령이를 살려내라.”

그러자 살려내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네 집에 가서 들어보아라. 왕시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담당 관리를 내어 석 달 만에 묻으면**(왕시가 살아나기 위한 조건)**(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제시한 과업, 조건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석 달 안에 묻지 못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빨리 가라. ”]([]: 죽은 왕시가 살아날 것이라는 재생 모티프가 드러남.)

유령이 청원하였다.

“집이 두 달 걸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어느 곁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전기적 요소) 들어보니 왕시가 죽었다며 장례 담당 관원을 내어 묻으려고 하였다. 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스무 날 내에 묻었다. 김유령이 생각하니, 도사 말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쁘기는 하나 그 시신을 묻고 보니 슬픈 심사가 더욱 그지없었다. [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서 도사에게 왕시를 묻었다고 아뢰려고 하였다. 화산에 가니 마침 그 도사가 월궁도사를 만나러 간 지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었다. 매우 민망하여 음식을 먹지 않은 지 이레가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다.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그 서러운 사정을 말하니, 그 아이도 도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지 몰라 더욱 민망해 하고 있었다.]([]: 왕시를 묻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화산도사를 찾아왔지만, 화산도사가 자리를 비운 탓에 바로 만나지 못함.)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고 천둥치고 바람불고 비내리고 어두워져 심사가 더욱 아득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더니 문득 날도 밝아지고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면서 도사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김유령이 나아가 뵈고, 왕시 묻은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朱砂)를 갈아서 부적을 써서 공중으로 치울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괘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었다. 또 동방에서 내치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왔다.**(전기적 요소) 도사가 그 푸른 옷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저 귀신을 데리고 왕시의 무덤을 파내 화산 밑에다가 두고 와라.”

그러자 푸른 옷 입은 놈이 그 귀신을 데리고 갔다. 이윽고 북방의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옛집에 가서 무빙 등 왕시를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희국에다가 두어라.**”(왕시의 종들을 모두 죽여 유희국으로 보내는 화산도사)

그러자 하직하고 가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이제야 그대의 소원(김유령과 왕시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행복한 결말을 암시함.)(해당 작품의 결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려가라. 다만 왕시의 종들을 다 잡아온 것은 행여 일이 생기면 네가 잘못될 것이므로 죽여온 것이니 서러워 말라.”

- 작자 미상, 「왕시전」

핵심 정리

- 갈래: 남녀이합형(男女離合型) 애정소설
- 성격: 전기적, 비현실적
- 주제: 여인을 향한 남성의 순수한 사랑
- 특징
 - 관탈민녀 모티프, 재생 모티프, 적강 모티프가 드러남.
 - 전반적으로 도교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남.
 -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남녀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됨.

이해와 감상

<왕시전>은 《묵재일기(默齋日記)》 제3책 내지(內紙)에 수록된 국문본 소설 다섯 작품(<설공찬전>, <주생전>, <왕시전>, <왕시봉전>, <비군전>) 중 하나로 초기 국문소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왕시전>은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김유령이 신이한 도력을 지닌 화산도사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되찾고 행복을 누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왕시전>은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수록된 <무쌍전(無雙傳)>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남주인공과 정혼한 여주인공이 억지로 ‘권력자’에게 끌려간다. 두 번째, 남주인공은 낙심하다 ‘이인(異人)’에게 지극정성으로 간청하여 도움을 청하고, 이인은 여주인공을 ‘일시적인 시체의 상태’로 만들어 권력자로부터 찾아온다. 세 번째,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제거된 후 남녀 주인공만 살아남아 생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왕시전>과 <무쌍전>은 기본적인 서사와 등장인물의 역할, 사건 해결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왕시전>은 <무쌍전>을 단순 번안하거나 개작한 수준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무쌍전>에 등장하는 고압아(古押衙)가 무부(武夫)나 협객(俠客)의 사실적 면모를 지녔다면, <왕시전>의 화산도사는 초월적 특성을 지닌 신인(神人)으로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작품 전체의 성격 또한 초월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 문학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문학적 특성을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전체 줄거리

부모를 여의고 늙은 여종 무빙과 살던 왕시는 19세 때 김유령과 혼인을 한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왕시를 늙은 신하가 빼앗아 간다. 왕시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김유령은 어느 날 ‘돈 1만 관을 가

지고 화산도사를 찾아가라'는 꿈을 꾸고는 즉시 출발한다. 왕시와 함께 살고 싶다는 김유령의 소원을 들은 화산도사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짐승이라도 구해 주라는 요구를 한다. 김유령이 덩굴에 걸린 뱀과 옥에 갇힌 도둑을 구제해 주고 오자, 화산도사는 엉뚱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살려 주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다시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신선계에서 잘못된 바람에 인간 세계에 살게 된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였다라는 말도 한다. 김유령이 근신하며 지내다가 다시 입산하자, 화산도사가 돈을 던져 신인을 부른 후, 김유령과 왕시를 죽여서 데려오게 한다. 그 후 화산도사는 김유령을 되살리고, 석 달 안에 왕시의 장사를 치르라고 한다. 김유령이 20일 만에 왕시의 장사를 지낸 후 다시 화산도사를 찾아간다. 화산도사는 부적으로 귀신을 부른 후, 신인에게 귀신들을 데리고 가 왕시의 무덤을 파서 시신을 화산 밑에 두고 오라고 명한다. 화산도사와 작별하고 오던 김유령은 화산에서 왕시를 만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김유령은 높은 벼슬에 오른다. 모두 80살까지 살다가 왕시가 먼저 죽고, 이어 김유령도 죽었으나 본래 선인이었으므로 아무런 자취가 남지 않았다.

서지정보

저자 정준희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7240-3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06.10

가격 500원

